

나도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싶다

수원 이의초등학교

조민채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며 저는 환경문제에 관하여 등한시 해왔습니다.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무겁고 엄청난 일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께서는 환경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어 있어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있고, 어떤 섬나라는 해수면이 육지로 올라와서 나라와 국민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반복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환경을 소홀히 하여 생긴 결과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문제가 이처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머지않아 재난과 예상치 못 하는 큰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작은 실천이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결심을 하고 실천해 왔던 몇 가지 환경보전에 관한 일들을 말씀드리며 같이 실천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글을 씁니다.

첫째 우리 집은 화학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조금 비싸지만 천연 비누를 구매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엄마의 생활이 바빠서 구매 후에 별도의 제작을 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부에도 자극이 덜하고, 물 오염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샴푸역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샴푸대신 엄마가 손수 만들어서 사용 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홍삼 즙이나 칙즙, 올리브 오일 등을 통하여 만드시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효과가 만점입니다.

머리에 윤기도 흐르고, 좋은 냄새도 풍겨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척 상쾌합니다.

우리 집에는 식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우리 집의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기간을 정하여 꽃에 물을 주고 잘 가꾸는 일인데 자꾸 잊어버려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반겨주는 식물들 덕분에 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분이 항상 상쾌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싶고 특히 마음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껴 쓰기와 나눠 쓰기입니다.

물건을 한 번 받으면 제법 오래 사용하는 저는 낡고 헤져도 쉽게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쉽게 버리는 물건도 제게 한 번 오면 몇 년을 간직하곤 합니다.

친구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던 비싼 물건들을 생일 선물이나 어린이날 상품으로 받은 후 며칠 이 지나면 그냥 버려지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실천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제 서랍장 한편에는 오래되었지만 손때 묻은 소중한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고 엄마가 가끔 말씀하시지만 제 어릴 적 추억과 그로 인해 즐거워했던 옛일들이 생각나서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반 친구들 가정도 저와 같이 많은 일에 친 환경적 활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동안 지구 환경이 더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아빠와 함께 호수에 가면 호수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평화롭고 한가하게 노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한 새들이 날아와서 노래하고 물 위로는 오리들이 헤엄을 치는 모습 때문에 이곳 주민들이 이 호수를 특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호수공원 여기저기에서 뽐내며 서 있는 은행나무며, 파란 잔디밭 모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처럼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호수가 오염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다면 어렵게 가꾸어놓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한 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온 자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자연이 숨 쉬지 못하게 되면 그곳에 사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환경보호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구에 기대고 사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의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힘이지만 지구를 지키는데 힘을 보탬 것입니다.

항상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의 멋진 자녀로 남고 싶습니다.